

대구지역 일부 초등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인식도에 대한 견해

정은경 · 이가령

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

색 인: 초등학교 교사, 지식도, 인식도

1. 서 론

초등학교 학동기 동안은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 시기이고, 이때 형성된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능력은 장차 일생을 통하여 구강건강을 관리하는데 기초가 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올바른 잇솔질 교육과 불소용액양치를 통한 예방은 향후 구강건강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¹⁾.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은 공중구강보건 사업 분야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¹⁾. 학생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구강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발생된 구강병을 가급적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을 보다 효율화 하도록 구강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강보건전문가가 직접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여건이 충분치 않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양호교사가 단독으로 학교보건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학교구강보건은 전문성에 관계없이 분리되어 소홀히 다루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윤 등²⁾은 양호교사의 구강보건인식도에 대한 연구에서 양호교사는 구강보건지식이 부족하며, 전통적인 구강보건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중구강보건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의 양호교사조차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보건교육시간과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한편 구강보건이라는 전문성을 결여되지만 담임교사들은 아동과 같이 지속적인 생활을 하며 학생의 건강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며³⁾, 교육학을 전공한 자이다. 동시에 학교교육의 장에서 교사의 태도 및 행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락처] 정은경 • (우 682-715)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 전임강사

전화 : (052) 230-0798, 전송 : (052) 230-0795, HP : 018-528-1653, E-mail : ekjung@mail.uc.ac.kr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 교사들이 학교 구강보건교육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3,8)}.

Flanders⁹⁾는 초등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구강보건교육수단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면서 학동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로 교실 내에서의 교육이 학동들의 지식습수 성향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하였고, Glasrud와 Frazier⁸⁾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의 습득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 인식수준은 학생들을 교육시켜 충분한 행동양상으로 습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대구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인식도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일환인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조사는 2005년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구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165명(수성구 30명, 동구 25명, 서구 25명, 달서구 30명, 북구 30명, 중구 25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하여 본 조사에 부적합한 설문지 38부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총 127부의 설문지를 조사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 자신의 기록에 의하여 작성, 회수하였다. 설문지에

수록된 질문들은 초등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구강위생관리 목적,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 치주질환과 불소에 대한 인식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 치주질환과 불소에 대한 인식도 등은 항목별로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구강위생관리 목적은 Friedman 순위검정을 실시하였고,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들에 대한 제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초등학교 교사의 남녀비율은 남자가 44명(34.6%), 여자가 83명(65.4%)으로 여자의 비율이 좀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31~40세가 52명(4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는 대졸 99명(78.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은 1~5년이 58명(45.7%)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표 1).

3.2.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습득경로

초등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습득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과의원(23.6%), 학교수업(11.8%), 보수교육(1.6%) 순으로 나타났다(표 2).

3.3.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목적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목적에 대한 Friedman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44	34.6
	여	83	65.4
	합계	127	100.0
연령	20~25	22	17.3
	26~30	29	22.8
	31~40	52	40.9
	40~45	14	11.0
	51~60	10	7.9
	합계	127	100.0
학력	전문대 졸	5	4.0
	대졸	99	78.6
	대학원 졸	22	17.5
	합계	126	100.0
경력	1~5년	58	45.7
	6~10년	30	23.6
	11~15년	22	17.3
	16~20년	5	3.9
	21년 이상	12	9.4
	합계	127	100.0

+ : 무응답치로 인해 빈도가 일치하지 않음.

순위 검정에서 목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각각의 목적 중에서 “치주질환 예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치아우식증 예방”과 “구취제거”가 비슷한 순위를 보였고, 다음으로 “아동에게 모범이 되려고”와 “심미적 목적”이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표 3>.

3.4.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

초등학교 교사의 치아우식증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치과내원을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02명(8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규칙적인 잇솔질이 매우 효과적이

표 2.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습득경로	빈도(N)	백분율(%)
학교수업(교과서)	15	11.8
보수교육	2	1.6
치과의원	30	23.6
대중매체(TV, 인터넷, 잡지 등)	77	60.6
기타(보건교사의 안내장)	3	2.4
합계	127	100.0

표 3.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목적

목 적	N	평균순위	SD	χ^2	p-value
치아우식증 예방방법	127	2.06	1.086	324.154	0.000
구취제거	127	2.49	.933		
치주질환 예방	127	1.77	.801		
아동에게 모범이 되려고	127	4.57	.661		
심미적 목적	127	4.11	.726		

라고 응답한 사람이 101명(81.5%)으로 나타났으며, 당분섭취 제한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명(35.5%)으로, 불소치약 사용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명(17.7%)으로, 불소도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0명(16.1%)으로 나타났다(표 4).

3.5. 치아우식증 예방법에 대한 견해의 Kendall's τ (p-value)

각각의 치아우식증 예방방법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 치과내원, 규칙적인 잇솔질($r=.2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당분섭취 제한은 불소치약 사용($r=.20$),

표 4.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

예방법	구분	빈도(N)	백분율(%)
정기적 치과내원	매우 효과적이다	102	82.3
	효과가 있다	12	9.7
	효과가 조금은 있다	8	6.5
	효과가 없다	2	1.6
당분섭취 제한	매우 효과적이다	44	35.5
	효과가 있다	65	52.4
	효과가 조금은 있다	7	5.6
	효과가 없다	8	6.5
불소치약 사용	매우 효과적이다	22	17.7
	효과가 있다	61	49.2
	효과가 조금은 있다	29	23.4
	효과가 없다	12	9.7
규칙적인 잇솔질	매우 효과적이다	101	81.5
	효과가 있다	23	18.5
불소도포	매우 효과적이다	20	16.1
	효과가 있다	63	50.8
	효과가 조금은 있다	36	29.0
	효과가 없다	5	4.0

표 5. 치아우식증 예방법에 대한 Kendall's τ (p-value)

	정기적 치과내원	당분섭취 제한	불소치약 사용	규칙적인 잇솔질	불소도포
정기적 치과내원	—				
당분 섭취 제한	-0.077(0.296)	—			
불소 치약 사용	0.059(0.417)	0.203(0.013)	—		
규칙적인 잇솔질	0.215(0.052)	0.015(0.852)	0.106(0.127)	—	
불소도포	0.077(0.258)	0.113(0.174)	0.537(0.000)	0.210(0.011)	—

불소치약 사용은 불소도포($r=.54$), 규칙적인 잇솔질 또한 불소도포($r=.2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正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5).

3.6.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로는 잇솔질시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초기 증

상이다를 “옳다”라고 정답으로 응답한 사람이 104명(81.9%)으로 5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성인의 치아상실의 주원인은 치아우식증이 아니라 치주질환이다를 “옳다”고 응답한 사람도 74명(58.3%)으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치주질환은 구강세척제로 예방이 된다는 “그르다”라고 정답으로 응답한 사람

표 6.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문항	구분	정답	N	%
성인의 치아상실의 주원인은 치아우식증이 아니라 치주질환이다	옳다	옳다	74	58.3
	그르다		13	10.2
	모르겠다		40	31.5
	합계		127	100.0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태이다	옳다	옳다	69	54.3
	그르다		10	7.9
	모르겠다		48	37.8
	합계		127	100.0
잇솔질시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초기증상이다	옳다	옳다	104	81.9
	그르다		9	7.1
	모르겠다		14	11.0
	합계		127	100.0
치주질환은 구강세척제로 예방이 된다	옳다	그르다	35	27.6
	그르다		83	65.4
	모르겠다		9	7.1
	합계		127	100.0
구강영양제(이가탄 등)로 충분히 치주질환이 예방된다	옳다	그르다	19	15.0
	그르다		71	55.9
	모르겠다		37	29.1
	합계		127	100.0

표 7. 불소에 대한 인식도[†]

문항	구분	정답	N	%
불소는 치아의 충치 저항성을 보여준다.	옳다	옳다	92	73.0
	그르다		3	2.4
	모르겠다		31	24.6
	합계		126	100.0
불소는 치아를 깨끗이 한다.	옳다	그르다	42	33.1
	그르다		60	47.2
	모르겠다		25	19.7
	합계		127	100.0
불소는 치아를 희게 한다.	옳다	그르다	18	14.2
	그르다		77	60.6
	모르겠다		32	25.2
	합계		127	100.0
불소는 구강내 세균 성장을 억제한다.	옳다	옳다	90	70.9
	그르다		10	7.9
	모르겠다		27	21.3
	합계		127	100.0
불소는 미세한 충치를 회복시킨다.	옳다	옳다	15	11.8
	그르다		74	58.3
	모르겠다		38	29.9
	합계		127	100.0

[†] : 무응답치로 인해 빈도가 일치하지 않음.

도 83명(65.4%)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치주질환은 구강세척제로 예방이 된다가 “옳다”라고 틀리게 응답한 사람과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9명(15.0%)과 37명(29.1%)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고, 치주질환의 원인이 치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58명(46.0%)으로 나타났다(표 6).

를 각각 “옳다” “그르다” “옳다”로 92명(73.0%), 77명(60.6%), 90명(70.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소는 치아를 희게 한다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52.8%로 나타났고, 불소는 미세한 충치를 회복시킨다는 모르고 있거나 그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88%로 가장 높은 오답율을 보였다(표 7).

3.7. 불소에 대한 인식도

초등학교 교사의 불소에 대한 인식도에서 비교적 높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은 불소는 치아의 충치 저항성을 보여준다는 불소는 치아를 희게 한다, 그리고 불소는 구강내 세균성장을 억제한다

4. 총괄 및 고안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구강병 예방 및 구강보건교육이 필수적이다. 구강보건교육은 지속성을 가져, 학생 자신들이 구강

보건을 개선하는 동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¹⁰⁾.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구강보건교육은 초등학교 아동이 구강보건에 관한 정보의 잠재적인 수용자이며, 많은 시간을 학교환경 내에서 생활하며, 초등학교 학령기가 일생동안의 구강보건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장점을 가진다⁵⁾.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이들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구강보건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인식도를 조사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학교구강보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는 대부분 대중매체(TV, 인터넷, 잡지 등)를 통하여 습득하였으나, Lang 등¹¹⁾의 보고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 지식습득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구강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추측되고, 따라서 이들을 학교구강보건의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목적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 치주질환 예방, 구취제거 및 아동들에게 모범이 되고자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2,11)}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치아우식증 예방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치과내원과 규칙적인 잇솔질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반면 불소치약 사용과 불소도포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불소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은 학교구강보건의 담당자로서, 특히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같은 구강보건의사업 주관자로서는 부족한 지식정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불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 선행되어야만 동기유발이 가능하리라 생

각된다.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정도는 성인의 치주질환이 점차로 진행되어 치아상실의 주원인이 되고, 잇솔질시 피가 나는 것은 초기 치주질환의 증상이고, 치주질환의 원인이 치태라는 항목에서 전반적인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Lang 등¹¹⁾의 보고에서 보다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보다 대체적으로 약간 높았으나 아직까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였고 전체적으로 구강위생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불소에 대한 지식정도는 전체적인 항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있는 반면 불소가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불소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하여 체계적이고 확고한 치과지식을 교육시킬 만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¹²⁾은 현재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활동이 미비하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교육으로서 학교 순회 구강보건교육을 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고, 장¹³⁾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구강보건의사업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식의 부족과 적합한 담당자의 부재로 적절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¹⁴⁻¹⁶⁾들의 결과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의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과 새로운 지식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총괄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담임교사가 보건교사와 연계성 있는 구강보건교육의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고, 학년별로 아동의 수준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학교구강보건교육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학교 치과위생사의 배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각급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위생사를 배치하여 학교구강보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습득경로, 구강보건인식정도를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1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Friedman 순위검정과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습득경로는 대중매체(TV, 인터넷, 잡지 등)를 통해서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치주질환 예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치아우식증 예방”과 “구취제거”가 비슷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동에게 모범이 되려고”와 “심미적 목적”이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3. 치아우식증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치과내원과 규칙적인 잇솔질을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하였다.
4. 불소에 대한 지식도에서 불소는 미세한 충치를 회복시킨다의 정답률이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김종배, 최유진. 공중구강보건학, 고문사, 서울, 212-215, 1996.
2. 윤강규, 최길라, 김종렬. 부산시 초등학교 교사의 구강보건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0;14(2):211-218.
3. 최선남, 안병철, 황보연. 학교보건학: 도서출

판 금광; 1994:117.

4. Loupe MJ, Frazier PJ. Knowledge and attitudes of schoolteachers toward oral health programs and preventive dentistry. JADA 1983;107:229-234.
5. Lang p, Woolfolk MW, Faja BW.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Michigans. J Public Health Dent 1989;49(1):44-50.
6. Mullins R, Sprouse W. Dental health in Bowling Green, Kentucky. J Am Soc Prev Dent 1973;3(1):60-65.
7. Boyer EM. Classroom teachers' perceived role in dental health education. J Public Health Dent 1976;36(4):237-243.
8. Glasrud PH, Frazier PJ. Future elementary schoolteacher's Knowledge and opions about oral health and community programs. J Pubulic Health Dent 1988; 48(2): 74-80.
9. Flanders, RA. Effectiveness of Dental health education programs in schools. J Am Dent Assoc 1997;14(2):239-242.
10. 김주환, 최유진, 김준환, 유광희, 김광중.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한구강보건학회 1983;8(4):371-376.
11. Lang P, Woolfolk M W, Faja BW.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Michigan, J Pubulic Health Dent 1989;49:44-50.
12. 김정식. 학교순회구강보건교육모형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79;4(1):45-58.
13. 장기완. 학교구강보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1991;6(22):57-60.
14. 백대일.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

- 과 태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1993;17(1):1-12.
15. 윤신종, 신승철. 학교불소양치사업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1; 15(1):149-161.
16. 최길라. 서울시 초등 양호교사의 구강보건인 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0;7:39-46.

Abstract

Views about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dental hygien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 The object of study: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city of Daegu —

Eun-Kyung Jung, Ga-Ryoung Lee

Dept. of Dental Hygiene, Ulsan College

Key word: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degree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cognition

In order to establish basic data before deciding on the ways to manage school dental hygiene project, this study polled 165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llected data was used SPSS 12.0 statistics program and got the technical statistics and This research and analysis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by using Fridmen rank test, Pearson's correlation.

1. To the question about how they acquire the knowledge of dental hygiene, 60.6 perce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urned out to learn about it through mass media (TV, Internet, magazines).
2. Regarding the purpose to maintain dental hygiene, "the prevention of dental diseases" ranked highest, and next "the prevention of cavity" and "the cure of halitosis" appeared at the similar level, and "to become a good model of children" and "to serve the esthetic purpose" ranked lowest.
3. As to the ways to prevent cavity, regular visits to dental clinic and daily brushing turned out to be more effective prevention method.
4. As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fluoride, the correct answer about fluoride that is recovered slight caries is appeared 11.8%, that was lowest correct answer ratio.